

국어 영역

10회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 독서
- 문학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되며 특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정보이다. 암호화폐는 다양한 방식으로 효용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 생산은 '채굴'이라 불리며 복잡한 수학적 연산을 기반으로 한다.

암호화폐는 탈중앙적 특징을 ① 지닌다. 은행, 금융사 등의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일반적 금융 거래와 달리 암호화폐는 중개 기관 없이 거래가 진행된다. 이러한 거래에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하기에 네트워크는 참여자 전원이 거래 기록을 공유하는 개방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블록의 내용이 무단으로 변경된다면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활용하여 블록에 거래 내역을 기록해 연결함으로써 무결성을 갖춘다.

암호화폐 거래에서는 거래 참여자, 노드, 채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거래 참여자는 암호화폐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당사자이다. 노드는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송신자가 실제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수신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이는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작업이다. 채굴자는 노드로부터 전송받은 유효한 거래를 일정한 단위로 모아 하나의 블록을 구성한다. 블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연산을 수행해야 하며 적합한 블록이 구성되었다면 이전 블록들과 연결되어 블록체인을 구성한다. 채굴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블록체인의 유지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받게 된다.

채굴자는 기록들을 모아 암호화 해시 함수를 통해 변환 후 블록을 구성한다. 해시 함수는 입력값의 길이와 무관하게 256 비트의 출력값을 생성한다. 또한 입력값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완전히 다른 출력값을 산출하며 함수에는 이전 블록들의 거래 해시값, 현재 블록의 거래 해시값, 노스가 더하여 입력된다. 네트워크는 블록을 무차별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해시값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한 정수인 변수가 노스이다. 이를 위해 채굴자는 노스를 바꾸어 대입해가며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적합한 출력값을 찾는 작업증명을 수행한다. 가령 조건이 '출력값은 0001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면 채굴자는 노스를 바꾸어 가며 적합한 출력값을 찾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네트워크의 시간당 블록 생성 개수는 감소한다.

네트워크는 암호화폐의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반감기를 도입하기도 한다. 반감은 채굴자들에게 주어지는 블록 생성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이며, 이러한 반감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어 암호화폐의 생산량을 효과적으로 줄인다. 이는 보상의 감소로 채굴자의 일시적 이탈을 유발하지만, 블록의 생산량이 감소한다면 결과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높아지기에 새로운 채굴자가 유입될 수 있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블록체인의 무결성은 참여자 전원이 공유하기에 보증된다.
- ② 채굴자는 노드가 검증한 유효한 거래들을 활용해 블록을 구성한다.
- ③ 블록이 만들어지면 거래 참여자는 블록과 조건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 ④ 노스의 값이 커지면 해시값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
- ⑤ 블록 생성 보상이 줄어들면 해당 암호화폐의 가치는 하락한다.

2. 작업증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암호화폐가 과도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네트워크는 해시값의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하겠군.
- ② 채굴자의 노스 대입 속도가 빨라질수록 네트워크가 블록을 승인할 확률이 높아지겠군.
- ③ 조건이 '출력값은 0000으로 시작해야 한다.'에서 '출력값은 000으로 시작해야 한다.'로 변화한다면 암호화폐의 생산량은 증가하겠군.
- ④ 이전 거래 내역이 열 건인 경우와 스무 건인 경우 산출된 해시값의 길이가 동일하겠군.
- ⑤ 제시된 조건과 근소한 차이의 출력값이 산출된 경우, 다음 노스는 이전의 노스와 가까운 값을 입력하는 것이 유리하겠군.

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암호화폐 A~C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시중에 유통되는 세 가지 암호화폐이다. 암호화폐 A는 네트워크가 현재 과도하게 생산된다고 판단하였다. 암호화폐 B는 반감기가 도래하였고 암호화폐 C는 블록 생성 조건이 까다롭게 변경될 예정이다.

- ① 암호화폐 A의 네트워크는 채굴 보상을 하락시킴으로써 암호화폐의 과도한 생산을 방지할 수 있겠군.
- ② 암호화폐 B는 결과적으로 가치가 상승하여 새로운 채굴자가 유입되어 채굴자 이탈의 영향이 줄어들 수 있겠군.
- ③ 암호화폐 C의 채굴자들은 출력값을 이전보다 자주 내보내 조건 변경의 영향을 줄일 수 있겠군.
- ④ 암호화폐 C의 네트워크는 암호화폐 A와 달리 암호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긍정적이겠군.
- ⑤ 암호화폐 B와 암호화폐 C의 네트워크는 모두 암호화폐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였군.

4. ㉔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형이 준 편지를 바지에 아직도 지니고 있다.
- ② 제주도에서의 추억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
- ③ 착한 성품을 지니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한다.
- ④ 그는 어릴적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 ⑤ 조선의 여인들은 품에 은장도를 지녔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정한담이 역모를 일으키자, 수련 중이던 유충렬은 이에 맞선다. 남경에 도착한 유충렬은 정한담과 승부를 벌인다.

도사가 적전에서 충렬에게 **한담의 투구가 깨어진 것**을 보고 대경하여 급히 **징을 쳐** 거둬에, 한담의 기운이 쇠진하여 거의 죽게 되었던 징을 쳐 거둬에 본진에 돌아와 정신을 놓고 기운을 수습하지 못하기를. 좌우 구하니 겨우 정신을 차려 앉으며 왈,

“선생은 어찌 알고 소장을 불렀나이까?”

도사 왈,

“적장의 칼 끝에 장군의 투구 깨어지기로 만분 위태하여 불렀노라.”

한담이 대경하여 머리를 만져보니 투구 없는지라 더욱 놀라 왈, “적장은 일정 천신이요, 사람은 아니로다. 십년을 공부하여 사람은 커니와 귀신도 측량치 못하는 법이 많았더니, 마룻과 쇠일귀 죽음을 조심하여 십 년 배운 법을 오늘날 모두 다 베풀어 적장을 잡으려 하더니 잡기는 새로이 기운이 쇠진하여 거의 죽게 되었소. ㉔ 천행으로 선생의 힘을 입어 목숨이 살았으나 천만 가지로 생각하되 힘으로는 잡을 수 없으니 선생은 깊이 생각하옵소서.”

도사 이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여 이윽히 생각하다가 군중에 전령하여 진문을 굳이 닫고 한담을 불러 왈,

“적장을 잡으려 할진대 인력으로는 잡지 못할 것이니 군장 기계를 모아 여차여차하였다가 적장을 유인하여 진중에 들게 되면 제 비록 천신이라도 피할 길이 없으리라.”

한담이 대화하여 도사의 말대로 약속을 정제하고 수일을 지낸 후에 갑주를 갖추고 진문에 나서며 원수를 불러 왈,

㉕ “네 한갓 혈기만 믿고 우리를 대적하니, 두려워할 만하구나. 빨리 나와 자웅을 결단하라.”

이때 **원수** 의기양양하여 진전에 횡행하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웅성출마하여 일합이 못하여 거의 잡게 되었더니, 적진이 또한 징을 쳐 거두거늘 다 이긴 겁에 계속 쫓아가 바로 적진 선봉을 헤쳐 달려들 제, 장대에서 북소리 나며 난데없는 안개 **사면에 가득**하고 적장이 간데 없고 음풍이 소소하며, 환설이 분분한데 지척을 모를레라. 가련하다 유충렬이 적장 피에 빠져 함정에 들었으니 곧 숨이 끊어지는구나. 원수 대경하여 신화경

[A]

을 띄 놓고 둔갑장신하여 일신을 감추고 안순법을 베풀어 진중을 살펴보니 토굴을 깊이 파고 그 가운데 **장창검극은 삼대같이 벌**였으며 사해신장이 나열하여 독한 안개, 모진 사석 사면으로 뿌리면서 함성소리 크게 질러 “항복하라!” 하는 소리 천지진동 하는지라. 원수 그제야 간계에 빠진 줄 알고 신화경을 다시 펼쳐 육정육갑을 베풀어 신장을 호령하며 풍백을 바빠 불러 운무를 쓸어 버리더라.

(중략)

이때 정한담이 도사의 피를 듣고 적장을 유인하여 함정에 넣었더니 죽기는 고사하고 삼군 억만 병을 한 칼에 무찌르고 장대에 달려들어 한담의 혼백 붙인 위인을 베이고 후군을 지치다가 황태후를 데려가는 양을 보고 닛을 잃어 도사에게 들어가 여쭙오되, “충렬은 일정 천신이라 이제는 백계무책이오니 선생은 어찌 하오리까?”

도사 대경망극하여 아무리 할 줄을 모르다가 한 피를 생각하고 한담을 불러 왈,

“**적장** 유충렬은 거거년전에 연경으로 귀양간 **유심의 아들**이라 하니 이제 군사를 급히 재촉하여 **유심을 잡아다가 진중에 가두고 죽이려** 하면 제 아무리 충신이나 임금만 생각하고 제 아버를 생각지 아니하라.”

한담이 이 말을 듣고 대화하여 군중에 전령하되 날랜 군사 십여 명을 조발하여 유주부를 빨리 나입하라고 분부하니라.

각설 이때 유주부가 북방 극한지지에 누년 고생함에 위인이 보잘 것이 없고, 남경에 난리 났단 말을 듣고 주야 근심하며, 행여 천자 죽을까 염려하여 동지장야 길고 긴 밤에 촛불만 도도 켜고 빌며 왈,

“명천이 감동하사 우리 천자 살릴진대, 내 아들 충렬이 살았거든 남경을 구원하고 제 아버지 원수를 갚게 하소서.”

이렇듯 정성을 드리더니 뜻밖에 한때 **군사** 달려들어 **유주부**를 잡아 내어 **수레 위에** 높이 싣고 불원천리 재촉커늘 유주부 정신 없이 인사를 놓았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생각하되,

“이제는 하릴없이 죽는도다. 우리 천자 승전하였으면 날 잡아오라기 만무하다. 일정 정한담이 역적 되어 천자를 죽이고 나도 또한 죽이려고 이 지경이 되었구나. 청천 일월도 무심하고 형산 신령도 못 믿겠다. 내 아들 충렬이도 정녕 죽었구나. 살았으면 어디 가서 아버지 원수 못 갚는가.”

이렇듯이 슬피 울 제 군사들도 낙무하더라.

여러 날만에 **적진 중에 득달**하니 이때 **정한담**이 용상에 높이 앉아 **곤룡포를 정히 입고** 백관이 시위하여 **유심을 잡아다가** 계하에 엮지르고 달려어 하는 말이,

“그대 마음이 하 고집하기로 만 리 연경에 수년을 고생하니 내 마음이 불안한지라. 이제는 짐이 천자되어 백관을 거느렸더니 그대 아들이 아직 미거하여 천위를 모르고 죽은 명제를 살리려고 우리 군사를 침노하니, 죄상을 논지컨대 진작 죽일 것이로되 그대를 생각하여 아직 살려 두었더니 중시 항복치 아니하노라. ㉖ 그대를 데려다가 지식에게 편지나 하여 부자 함께 만나, 나를 도우면 **고관대작은 원대로 할 것이니** 부디 사양치 말라.”

유주부 이 말을 듣고 분심이 차올라 눈을 부릅뜨고 쭈그러 앉으며 왈,

“네 이놈 정한담야. 천지도 무섭잖고 일월도 두려워지 아니하냐.

나는 자식도 없고, 자식이 설혹 있든들 우리 천자를 모시고 너 같은 역적 놈을 죽이려 하는데 그 아비 무슨 일로 성군을 저버리고 역적을 도우라 하며, 내 자식은 새로이 광대한 천지간이 삼척 동자도 네 고기를 먹고자 하노라. ㉠하물며 내 아들이 옥황이 점지하사 남경을 도우라 하였으니 만고역적 너같은 놈을 섬길 듯 하나.”

- 작자 미상, 「유충렬전」-

5.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인물의 회상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을 전환하고 있다.
- ④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 ⑤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호의를 보여주고 있다.

6.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한담'은 '도사'에게 자신을 귀환시킨 이유를 물었다.
- ② '도사'는 '정한담'에게 충렬의 내력을 이유로 들어 계책을 제안했다.
- ③ '유충렬'은 적진으로 들어가서 '정한담'에게 항복을 요구했다.
- ④ '유심'은 군사가 자신을 잡으러 오자 패전하였으며 '충렬'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 ⑤ '정한담'은 '유심'에게 유심을 생각하여 충렬을 살려 두었다고 말했다.

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적의 강함을 이유로 계책을 세울 것을, ㉢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편이 될 것을 제안하는 말이다.
- ② ㉠과 ㉣는 인물 간의 위계를 바탕으로 상대를 재촉하는 말이다.
- ③ ㉡는 상대를 인정하며 자신과 결판을 낼 것을, ㉣는 초월적 존재의 점지를 이유로 들어 자신의 편이 될 것을 전하는 말이다.
- ④ ㉢는 주어질 보상을 들며 상대를 회유하는 말이며, ㉣는 상대를 비난하며 회유를 거절하는 말이다.
- ⑤ ㉠은 상대의 공을 치하하며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말이며, ㉡는 상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말이다.

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충렬전」은 천상에서 내려온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적대자의 전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적대자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며 주인공과 전투한다. 이 과정에서 조력자는 그를 구제하거나 상대를 제압할 계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① '도사'가 '한담의 투구가 깨진 것을 보고 '징을 쳐' 본진에 돌아오게 하는 것에서, 적대자를 구제하는 조력자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② '원수'가 적진에 달려들자 안개가 '사면에 가득'해지고 '장창검극'이 '삼대같이 벌'어진 것에서, 상대를 제압하고자 하는 조력자의 계책을 알 수 있겠군.
- ③ '도사'가 한담에게 '적장'이 '유심의 아들'이므로 '유심을 잡아다가 진중에 가두고 죽이려 하'자는 것에서, 상대를 제압할 조력자의 계책과 그 이유를 알 수 있겠군.
- ④ '유주부'가 '군사'에게 잡혀서 '수레 위에' 실린 후 '적진 중에 득달'한 것에서, 조력자의 계책이 실행되는 중임을 알 수 있군.
- ⑤ '정한담'이 '곤룡포를 정히 입'은 후 '유심을 잡아다가' 달려어 그를 회유하는 것에서, 조력자의 계책을 그대로 따라 행동하는 적대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